한국기독교의 민족운동과 통일의 과제

서영석*

I. 들어가는 말

민족주의는 한국 기독교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구한말에 일어난 개혁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식이 강화되고 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 공동체의 보존과 독립을 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1] 한국에 수용된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필요에 응답하면서 기독교가 한국 민족주의의 한 세력으로 역할을 하였거나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도 사실이다. 개화 초기 들어온 한국의 기독교가 민족문제에

* 협성대학교 신학과 교회사 교수

1) 최영근,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한 한국 기독교와 민족주의 접합에 관한 소고," 「장신논단 49(1)」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17), 227.

일찍이 관심을 가지고 개화 초기나 일제 강점기하에서 민족문제에 대해 외면치 않고 적극 활동하였다. 때문에 개화기에 수용된 외래종교인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주류 종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2]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는 구한말에 문명개화와 근대화의 통로로 인식되었다. 특히 1900년대 초 상동교회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애국활동이 강력히 전개되었고 이후 기독교는 일제 강점기에 삼일운동과 실력양성을 추구하였던 민족운동에 깊이 참여하였고 핵심세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기독교의 민족운동은 일제하 항일활동에 큰 물결과 같이하여 교인이든 전국 교회의 조직망이든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였다.[3] 이어서 해방 후에는 민족운동으로서 한국 기독교는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 건설의 주도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본 글에서는 한국에 수용된 기독교가 사회와 민족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기독교의 민족운동의 형성과 전개, 특히 상동파의 활동과 일제 강점기의 기독교의 민족운동의 활동과 영향력을 논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해방 후 민족문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간략히 다루고, 아직도 기독교 민족운동의 과제로서 우리 역사에 남아 있는 통일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며 그 과제를 찾아보려고 한다.

---

2) 노치준, 『일제하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 연구』 (서울: 다산글방, 1995), 36-37.

3) 민경배, 『일제하의 한국기독교 민족 · 신앙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99.

II. 초기 한국기독교 민족운동

민족주의는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이데올로기이다.[4] 왜냐하면 민족주의가 포괄하는 주제와 범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에 접근하는 학문적 방법론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보편적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일어난 민족운동을 찾아보면 갑신정변, 동학운동, 갑오농민전쟁,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 조선의 개화기 기독교(개신교)가 반민족적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 이전에 들어온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와 선교과정에서 조선 정부에게서 큰 비난과 박해를 받은 것과는 다르게 기독교 선교 초기부터 기독교가 곧 한국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개화시기에 한국 백성들은 기독교가 근대화에 영향을 미친 것 이외에도 기독교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구국의 방편으로 기독교로 입교하거나 관리들의 탐학을 피하여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였다.[5] 김권정은 기독교 민족운동은 기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민족공동체가 직면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보고 있다.[6] 결국 기독교 민족주의란 민족공동체가 직면한 시대적 문제들을 기독교적 신념과 가치에 입각하여 해결하고, 민족공동체에

---

4) John Hutchinson and Anthony D. Smith (eds.),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3-5.

5)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보성, 1986), 19.

6) 김권정,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서울: 국학자료원, 2015) 23.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독교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신앙적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1운동에서 나타나듯이 당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이 모두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 대표 등 종교적 영향력 아래에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는 점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종교입국론에 의거하여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기독교 수용과 기독교 민족운동의 시작

19세기 말 기독교가 한국에 수용되면서 먼저 의료와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선교가 펼쳐지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국인들에게 치료해 주고, 근대 교육을 통해 한국인들의 정신을 개혁하고 근대시민이 되는 데 이바지하였다. 한국선교 초기에 기독교로 개종한 교인들은 예배와 성경공부 및 기도회 등의 신앙 활동에 참여했고, 교회를 통하여 신교육을 습득하고 토론 모임에 참여하여 토의법을 배우는 등, 민주주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 나아가 교회가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개혁을 하거나 국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정치적 운동을 위해 모이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7] 당시 조선의 계몽을 이끌던 언론에서도 기독교야말로 문명의 부강을 이끌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야 참 개화한 사람이라고 언급하면서 서양 각국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문명이 발달하여 백성이 풍족하고 나라가 부강하다고 강조하였다.[8]

---

7)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 연구』(숭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172-178.

그러므로 교회나 학교를 비롯한 기독교 기관들이 당시의 사회문제와 정치적 현안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와 민족운동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기독교적 사회개혁운동으로서 우상숭배 거부와 미신을 철폐하려는 노력은 이미 1890년대에 나타난다. 「독립신문」은 물론, 1897년에 창간된 두 개의 기독교 신문인 「죠션 크리스도인 회보」와 「그리스도 신문」에도 자주 소개되고 있다.[9]

2. 독립협회, 협성회 등의 초기 기독교 민족운동

기독교인의 정치사회적 활동은 독립협회운동과 관련되어 발전되어 나아갔다. 독립협회 운동이 당시 개화 개혁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중심한 신앙 활동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 및 사회적인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태극기 게양, 애국가 보급, 고종탄일 경축회, 한글보급과 토론회 등의 활동을 펼쳤고, 이로 인해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정치 및 사회의식이 고양되었고, 이러한 개혁운동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대중화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특히 태극기 게양은 주일이나 성탄절 등 각종 행사 때 교회나 기독교 계통의 학교 및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어떤 경우는 십자가와 태극기를 나란히 게양하는 경우도 있었다.[10] 또한 이러한 행사에서는 태극기 게양과 함께 다양한 애국가가

---

8) "우리 교회가 흥왕ᄒᆞ면 나라이 더옥 문명ᄒᆞ,"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8년 6월 1; "론셜: 예수탄일," 「독립신문」, 1898년 12월 24일

9) 「죠션 크리스도인회보」 1권 6호, 1897년 3월 10일 ; 이만열, 『기독교 수용과 사회개혁』, 423.

10) "잡보," 「독립신문」, 1896년 9월 5일.

불려졌다. 이러한 애국가의 내용에는 충군애국의 정신이 담긴 여러 종류의 가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보급되고 있었다. 달성회당(상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1896년 독립협회의 활동이 시작될 무렵부터 애국가를 지어 불렀는데, 독립공원을 건설하여 태극기를 게양하고 국민들이 합심하여 문명개화를 이루고 인민들이 자주하는 마음을 가져 대군주의 덕을 돕자는 충군애국을 노래하였다.[11] 고종의 탄신을 축하하는 만수성절 행사에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선교사들은 군주인 고종과의 친근한 유대관계를 통해 기독교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선교의 기회로 삼기 위한 도구로 이런 활동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연합행사로 많이 치러진 이 행사는 정동, 새문안, 남문안, 모화관, 동대문안, 연못골, 피마병문, 제중원, 달성회당 등 각처의 회당에서 대황제 폐하의 탄신을 경축하는 기도회를 가진 후, 이들이 장악원 대청에 함께 모여 집회를 갖기도 했다.[12]

초기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교리와 윤리에 입각한 사회개혁운동과 독립협회의 사회·민족운동을 기독교의 가르침의 한 형태로 받아들였다. 한국의 개화기에 기독교가 소개되고 국내외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늘어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펼치게 되었다. 이때 기독교 윤리에 근거한 사회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기독교 윤리에 근거한 사회개혁운동은 우상숭배와 제사의 거부, 술, 담배, 아편의 금지, 그리고 혼례와 장례의 문제, 여성의 인권,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같은 봉건적, 민족적 모순에 대한 비판과

---

11) "잡보: 대죠션 달셩회당 예수교인 등 애국가," 「독립신문」, 1896년 7월 23일.
12) "잡보," 「독립신문」, 1896년 9월 9일.

개혁노력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창기 기호지방의 개화파 지식인들에게 기독교 선교는 직접적인 복음전도보다 신교육을 통한 간접적인 문화선교 방식이 주종을 이루었다. 윤치호, 서재필 등 당시 지식인들은 문명개화의 맥락에서 기독교를 수용하였고, 이렇게 '서구 기독교 문명의 힘'의 사상적 세례를 받은 신지식층 학생들과 양반 개혁 관료출신의 지식인들은 배재학당 내의 협성회와 독립협회를 통하여 사회개혁과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독립협회의 창립과 지부 결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만민공동회를 비롯한 반봉건, 반외세, 애국계몽과 국권회복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독립협회의 민족주의 활동의 중심에는 바로 서재필, 윤치호 등 미국유학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었고, 이승만 등 기독교계 인사가 만민공동회 운동을 계기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지도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13]

19세기 말 기독교를 수용한 상당수 한국인들은 1890년대 후반 '독립협회운동' 등의 활동을 통해 현 사회와 정치의 상황을 배워나가면서 기독교 정치, 사회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한말과 일제 하 기독교의 영향력은 한국의 개화기에 민족 및 자본주의 진영의 중요한 집단이 되었고, 서양의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이면서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데 핵심적인 세력이 되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한국교회가 정치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며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를 분리하면서 교회의 비정치화 정책을 표명하였다.[14] 이러한 교회의 비정치화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음

---

13) 장규식, "일제 강점기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의 정치경제사상,"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31)」 (1998): 37-42

에도 불구하고 개인 차원의 정치운동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는 없었다. 국가의 위급한 상황에서 민권의식이 신장되어 감에 따라 개인은 물론 일반사회 단체 및 정치 단체에서 정치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교인들은 교회보다는 학교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대사회적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하지만 감리교에 소속된 상동교회 엡웟청년회는 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활동을 펼쳐나갔다.

결국 기독교 민족운동은 기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공동체'가 직면했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신앙의 실천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수를 믿고 개화기에 기독교에 귀의한 일단의 신자들은 민족문제와 기독교의 가르침이 별개라고 보지 않고 어려운 민족 현실을 보면서 당시의 민족공동체의 대내외적인 모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간 것이다.

3. 기독교 민족운동의 유형과 방법

유동식은 한국의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취했던 것으로 민족문제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교회와 정치를 엄격히 분리하자는 입장이다. 결국 기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며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한층 기독교의 정치 참여를 억제하였다. 둘째, 안창호나 김규식, 차리석처럼 기독교 정신을 중요시하지만, 교회와 관계없이 민족의 독립과 구국운동을 전개하는 유형이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달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국운동을 전개하면서 애국, 독립운동을

14) 「그리스도신문」, 1901년 10월 1일.

꾀한 유형이다. 셋째, 이승만처럼 기독교를 통한 서구 제국과의 교류, 교회나 학교 조직의 힘을 민족독립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다. 넷째, 민족운동에서 교회의 역할을 중요시하면서도 비교적 온건하게 계몽이나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쳐 실력을 키우고 외교적 활동을 통해 윤치호처럼 민족운동과 교회운동을 하나로 합친 입장이거나 그 중간에 선 입장이다. 다섯째, 전덕기, 손정도, 현순, 이필주처럼 교회 안에서의 민족운동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즉 전인적인 인간 구원을 향한 선교의 일환으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독립을 이루려는 민족운동이다.[15]

이중에 좀 더 살펴봐야 할 애국 계몽운동의 유형은 기독교 문명론에 입각하여 기독교를 통한 문명개화와 근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고 민족의 회복과 독립적인 근대 민족국가가 형성되는 것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구한말에 기독교는 서양 근대문명의 기반과 근대화의 통로로 인식되었고, 기독교와 근대문명은 종종 동일시되었다. 독립협회 운동을 주도한 서재필은 한국에서 문명개화를 추구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독교라고 보았고, 이를 통해 서양 제국과 같은 근대적 민족국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16] 이 유형의 기독교 민족주의는 실력양성과 애국 계몽운동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추구하였는데, 교회와 기독교 기관을 통한 점진적인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17] 이러한 인식하에서 기독교 민족주의가 잘

15) 유동식, 『정동제일교회의 역사(1885-1990)』 (기독교대한감리회, 1992), 200.

16) Philip Jaisohn, "What Korea Needs Most," *The Korea Repository* (March 1896), 14-16.

드러난 분야는 교육이었다. 교육사업은 기독교가 초기부터 강조해왔던 선교의 일환이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학교를 세워 민족의 일꾼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1923년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가 설립한 초등학교의 수는 1,651개에 달하여 같은 기간 공립 초등학교 수의 거의 2배 가까이 육박하고 있었다.[18] 기독교의 교육사업은 미션스쿨, 교회학교, 주일학교와 여름성경학교, 야학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기독교의 교육적 사명과 관련하여 「기독신보」는 "조선 민족에게 기회가 도래하고 있으니, 사람을 준비시켜야 하고, 사람의 준비는 곧 교육"임을 역설하면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민족을 위한 교회의 사명으로 강조하였다.[19]

한국에서 기독교와 민족주의와의 연결의 대체적인 특징은 민족과 세계구원이라는 복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민족공동체가 당면한 시대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해답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민족공동체가 풀어야 할 과제를 배타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서 복음의 보편적 가치 안에서 응답하고자 했고, 동시에 민족공동체 가운데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 기독교인이 무장투쟁이나 급진적 투쟁에 참여했더라도, 기독교와 민족주의가 접합된 기독교 민족주의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진적인 투쟁이나 정치적 민족운동과 거리를 두고, 온건하고 점진적인 기독교적 실천을 지향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

17) 박찬승, 『민족주의의 시대』(경인문화사, 2007), 89-103.

18) Horace 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1926), 231.

19) "하기아동학교와 조선의 장래," 「기독신보」, 1924. 6. 25. 사설.

기독교 민족운동은 기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민족공동체가 직면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기독교의 가치를 사회와 문화에 적용하면서 민족공동체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던 운동이었다.[20]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구한말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 기원하여 일제시기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주요한 세력으로 발전해 나간 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이들은 기독교계 학교, YMCA와 장로교 농촌부와 같은 기독교 기관, 그리고 동우회나 흥업구락부와 같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신념과 시민적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가치관을 결합함으로써 "근대 시민 육성을 통한 자유문명국가와 실력양성을 통한 자본주의 국가 건설을 추구"하면서 기독교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21]

III. 상동파의 민족운동

1. 상동교회와 전덕기 목사

상동교회는 미감리회 선교사 스크랜턴이 한국 선교 초기에 1885년 정동에서 의료사업으로 시작하여 1888년 남대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전도한 결과 세워진 교회이다. 한국 선교 초창기에 상동교회는 남대문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와 섬김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선교하여 교세가 급성장하였다. 1900년대 초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로 발전해 나갔는데, 전덕기가 중심이 된 청년회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20) 김권정,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23.

21)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혜안, 2001), 377-390.

모여들기 시작하여 애국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05년에 일어난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 강제 체결 시에 조직적인 반대 투쟁이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구국운동과 관련한 상동교회의 역할은 매우 특징적이고 돋보였다. 상동교회는 초기에 스크랜턴 목사의 헌신적인 의료봉사와 복음전파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며 남대문 지역에서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특히 전덕기가 상동의 본처 전도사의 직을 맡으면서 당시 조국의 장래를 염려하는 청년들이 상동교회로 몰려들었고, 결국 민족운동 및 구국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전덕기는 애국 청년들과 구국활동을 하면서 상동교회에서 목회의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전덕기는 191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민족 운동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구국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당시의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민족운동은 곧 전덕기가 추구하는 신앙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신하였기에, 상동의 전덕기는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민족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갔다. 전덕기가 목회하는 당시 상동교회는 구국운동을 원하는 전국의 모든 지사들이 쉽게 모이는 중심지였고, 전덕기 목사는 그 중심인물이 되었다.[22] 그리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면서 상동청년회는 강력한 민족 구국단체로 부각되어 있었다. 상동청년회는 상당한 수의 청년층으로 구성되었고,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까지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덕기의 상동 청년회에 대한 활동과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어 갔다. 1905년 청년회가 해산되기까지 구국운동과 민족운동의 근거지가 되었음을 일제도 파악하고 있었다.[23]

---

22) 張錫英, "승리의 비결," 『華泉 回顧錄』 (益文社, 1976), 51.

23) 『顧問警察小誌』 (韓國內部警察局, 1910), 96-97.

2. 상동청년회의 조직과 활동

1897년 9월에 상동교회에 청년회가 세워져 대내외적인 각종 행사와 사업을 전개하면서 활기를 띠었다.[24] 또한 전덕기는 1902년부터 상동교회의 실질적인 목회자로 교회를 이끌어 갔다. 스크랜턴 목사로부터 신임을 받던 전덕기는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 내에 엡웟청년회를 주관하면서 청년운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청년회가 더욱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1903년 전덕기를 회장으로 상동청년회가 재건되면서 이동녕, 이준, 이동휘, 최남선 등 독립협회에서 교분관계에 있던 동지들이 모여들어 전덕기 중심의 청년 조직이 결성되어 회원 수가 증가하였다.[25] 특별히 신앙적 동기가 아니더라도 구국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상동청년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26] 이로 인해 독립협회 해산으로 구심점을 잃은 독립운동 세력들이 전덕기의 열린 자세와 나라 사랑의 열정으로 인해 뜻을 같이하는 애국 청년들이 모여들게 되었다.[27] 그러므로 모인 애국 청년들은 상동교회에서 전덕기의 지도하에 기독교 신앙도 받아들이고 애국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즈음에 상동청년회에 모인 회원들은 전덕기, 구연영, 김진호, 김창환, 박용만, 서상팔, 여준, 우덕순, 윤태훈, 이관직, 이동령, 이승만, 이준, 이필주, 이회영, 이희간, 정재면, 조성환, 주시경, 최재학, 한규설, 이재극, 이상설, 민영환 등이었는데, 이들은 대표적인 애국인사들이었다.[28]

---

24) "청년회," 「조선크리스도인 회보」, 1897. 9. 8.

25) 이승만, "상동청년회의 학교를 셜시홈," 「신학월보」 (1904. 11), 449.

26) 『조선감리회연회록』 (1906), 29-30.

27) 李炫熙, 『臨政과 李東寧 硏究』 (서울: 一潮閣, 1989), 72-73.

28) 한규무, "상동청년회에 대한 연구 1897~1914," 「역사학보」 (역사학회, 1990),

상동청년회는 1903년 5월 상동청년회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면서 조직을 일신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다.[29] 청년회 임원으로 회장에 전덕기, 전도(선교)국장에 박승규, 학문(교육)국장에 이은덕, 인제(구제)국장에 최재학, 다정(친교)국장에 박용만, 회계(재정)국장에 임상재, 통신(서기)국장에 공흥렬 등이 선임되었다. 회장 취임 후 전덕기의 활동과 행보가 눈에 띈다. 전덕기는 상동교회 엡웟청년회 회장 자격으로 1903년 11월, 정동제일교회 '보호여회 창립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연설하였다.[30] 전덕기는 상동교회의 청년회 조직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평양 등지의 다른 교회 청년회 조직과 연결되었는데, 이는 후에 그가 엡웟청년회 조직을 통해 전국적으로 민족 운동가들을 연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상동청년회는 교회에 모여 단순히 기도하며 예배만 드리는 청년회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고 민족의 존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민족주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3. 상동청년회와 을사조약 강제 체결 반대운동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독교계의 대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훈령을 받은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정교분리의 원칙하에 을사늑약과 같은 국가의 위난에도 침묵하였다. 오히려 일본의 지배에 대해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84-85.

29) 공흥렬, "밋음과 열심," 「신학월보」 (1903.9), 395-400.

30) "정동보호녀회 제삼차 돌날," 「신학월보」 (1903.12), 539.

해석하는 자들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선교사들의 교회의 정치 불간섭에 대한 원칙이 있었지만, 일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며 항일 민족운동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기독교의 민족저항운동으로서 강력하게 활동한 중심에는 상동교회 청년회가 있었다. 1905년 11월 1일 상동교회의 책임자인 스크랜턴은 청년회 집회 금지 및 야학교 폐쇄조치를 내렸다.[31] 이로 인해 상동청년회는 큰 타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러한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덕기와 상동청년회는 민족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갔다. 일제의 '보호조약' 체결의 음모가 드러나자 상동청년회에서는 구국기도회를 통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같은 일제의 국권 침탈의 야욕을 우려하면서 11월 10일 저녁에 "尙洞靑年會에셔ᄂᆞᆫ 會員 千餘名이 國家禍機燃眉ᄒᆞᆷ을 憤慨ᄒᆞ야 至於相扶痛哭"[32]하는 기도회가 개최되었다. 이처럼 상동청년회에서 시작한 구국 기도회는 11월 18일 '을사 5조약'이 체결된 직후에는 감리교 · 장로교 · 침례교 등 초교파적 모임으로 발전되어 여러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일 오후 2-4시에 열렸다. 이 모임은 전덕기 · 정순만 등이 주도하는 가운데 상동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간절한 구국기도회로 열렸다.[33] 당시 민족 언론지에서는 청년들이 이때 발표된 구국 기도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전국에 이 소식을 알렸다.

萬王의 王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韓國이 罪惡으로 沈淪에 드럿스

---

31) "W. B. Scranton's letter to Dr. Leonard," Nov. 1. 1905.

32) 「大韓每日申報」, 1905.11.12.

33) 정교, 『大韓季年史 下』(국사편찬위원회, 1957), 191.

ᄆᆡ 오직 하나님밧게 빌ᄃᆡ업사와 우리가 一時에 祈禱ᄒᆞ오니 韓國을 불상히 녁이사 耶利未亞와 以賽亞와 但以理의 自己 나라를 爲ᄒᆞ야 懇求ᄒᆞᆷ을 드르심갓치 韓國을 救援ᄒᆞ사 全國 人民으로 自己 罪를 悔改ᄒᆞ고 다 天國 百姓이 되어 나라이 하나임의 永遠ᄒᆞᆫ 保護를 밧아 地球上에 獨立國이 確實케ᄒᆞ야 주심을 耶蘇의 일홈으로 비ᄋᆞᆸ나니다.[34]

구국 기도문에서 죄악에 빠진 한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 국민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 독립국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약에 나오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의 나라사랑의 간구처럼 국권회복과 독립을 간절히 기도하였다. 상동교회에 모여 간절히 구국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된 가운데 이들의 구국의 신앙이 행동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4. 신민회와 상동교회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상실되어 일제의 한국지배가 노골화되는 가운데 종래의 계몽주의적인 온건한 방법으로는 구국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구국 방법으로 만든 비밀결사 조직이 신민회이다.[35] "대한신민회 통용장정"에서 신민회의 목적과 이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34) 「大韓每日申報」, 1905.11.19.

35) 신용하, "新民會의 創建과 國權恢復運動," 「韓國學報」 제 8, 9집 (서울: 일지사, 1977), 51; 신용하, 『韓國民族獨立運動史硏究』 (서울: 을유문화사, 1986), 18-19.

本會의 目的은 我韓의 腐敗한 思想과 慣習을 革新하야 國民을 維新케 하며 衰頹한 發育과 産業을 改良하여 事業을 維新케 하며 維新한 國民이 統一聯合하여 維新한 自由文明國을 成立케 한다.[36]

즉, 실력양성을 하여 온 국민이 연합하여 국권을 회복한다는 것이 신민회의 목적이었는데, 이러한 목적과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신민회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37] 신민회는 한말에 나타난 민족 항일운동단체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민회(新民會)가 결성되는 과정에서 '상동파'[38]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 신민회 창립과 활동에 있어서 상동파로 불리는 민족운동 세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그동안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39]

상동교회 내에 설립한 학교의 이름을 '청년학원'이라 한 것은 '청년을 가르쳐 인재를 배양하자'는 뜻과 함께 '상동교회 엡웟청년회에서 설립한 학교'란 뜻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40] 청년학원의 설립에 있어

---

36) "大韓新民會通用章程," 愼鏞廈, 『韓國民族獨立運動史硏究』, 30.

37) 愼鏞廈, "新民會의 創建과 國權恢復運動," 「韓國學報」 제 8, 9집 (1977), 51.

38) 상동파란 상동교회 교인들과 그 교회에 출입하는 독립투사들을 총칭해서 쓰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전덕기와 친분이 있거나 상동교회 교인이면 상동파라 부르지만 신앙여부를 떠나 전덕기의 영향을 받으며 독립운동을 벌인 애국지사들을 포함한다. 상동교회 교인과 상동교회에서 세운 공옥학교 · 상동청년학원의 교사 · 학생, 상동청년회 회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포함된다. 전택부, "상동파-그 역사와 독립꾼들," 『토박이 신앙산맥』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39)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90), 180-182; 송길섭, 『민족운동의 선구자 전덕기 목사』 (서울: 세신문화사, 1985), 86-90; 이현희, 『臨政과 李東寧硏究』 (서울: 一潮閣, 1989), 103; 윤춘병, 『전덕기 목사와 민족운동』 (서울: 감리교출판사, 1996), 17-88; 조이제, 『한국 감리교청년회 100년사』 (서울: 감리교청년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1997), 70-76.

서 선교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의 도움 없이 국내외를 포함한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조하고 협력하여 개교 및 운영 자금을 충당했다는 점은 민족교육에 있어서 자립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먼저 독립협회 해산 후 그 일부가 전덕기 목사가 있는 상동교회의 청년회로 모여들었고, 독립협회 이후 독립정신은 상동교회에서 함양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은 전덕기가 상동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청년회 회장직을 맡아가며 청년회를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상동청년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7시에 집회를 갖고 예배와 기도 그리고 독립협회 때와 다름없는 격렬한 시사토론과 논평이 있는 청년모임을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가 잘못 되어가고 국가 위난의 때를 맞아서 청년회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결사구국'을 목적으로 비밀결사의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무형의 모임 곧 신민회의 모임이었다. 이상의 설명들을 종합하면 이미 상동의 전덕기를 중심으로 모여든 애국청년들이 구국의 목적으로 신민회란 비밀결사의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안창호가 1907년에 신민회를 조직했다는 것은 이미 상동교회 안에 상동파 핵심 인물들이 비밀결사 모임을 만든 후 안창호가 귀국해 조직을 확대, 발전시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안창호는 전덕기가 신민회 조직에 있어서 신민회 창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신민회 중앙조직인 중앙총회 평의원 겸 재무를 맡았다고 진술하였다.[41] 그리고 전덕기는 신민회 지방조직인 경성총감(京城總監)을 맡아 서울 지역의 회원 확보와 관리

---

40) 리승만, 「신학월보」, Vol. 4, No. 11, 1904, 446-447.

41) 도산기념사업회, 『속편 도산 안창호』(서울: 삼협문화사, 1954), 87. 안창호는 1932년 재판 과정에서 신민회 창립 발기인으로 자신을 포함하여 이갑 · 유동열 · 이동휘 · 이동녕 · 양기탁 · 전덕기 등 7인을 지목하였다.

를 담당하였다.

상동파의 민족운동의 전개과정을 보면 독립협회(1896년) → 상동청년회(1903년) → 상동청년학원(1905년 청년회 해산 이후) → 신민회(1906년)에 이르는 민족운동 흐름을 정리해 볼 수 있다.[42] 상동청년회가 1905년 11월 해산당한 후 이전과 같은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이미 운영되고 있었던 청년학원의 조직체를 통하여 신민회를 태동, 발전시켜 나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상동교회는 신민회의 산실이며 그 운동의 핵심본부였으며, 신민회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기독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상동교회는 애국청년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모여 그들의 사상을 펼치고 국권회복을 위하여 활동하는 장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43]

IV.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에서의 기독교인의 활동

임시정부 수립에 있어서도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1919년 4월 10일 독립임시사무소의 역할이 원활치 않아 그날 밤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되었다. 손정도와 이광수의 제의에 따라 각 지방 대표회를

---

42) 일제가 작성한 「조선독립운동의 기원」이란 자료를 보면, 일제는 한국독립운동의 맥락을 '독립협회→상동청년회→망명자들의 해외독립운동'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독립협회가 해산되자 그 회원들이 대거 상동청년회로 들어왔고, 이들이 다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43) 李炫熙, 『臨政과 李東寧 硏究』, 71.

먼저 구성하기로 하여 29명의 인물을 선출하였다. 밤을 새워가며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다섯 가지 중요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회의체의 이름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으로 정했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우며 최초의 입법 기관으로 임시의정원을 출범시킨 것이다.[44] 임시의정원 29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각 지방대표라고 불리었지만 대부분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 출신이었다.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인 11명, 대종교인 7명, 확인되지 않은 사람 11명이다. 그런데 대종교인 가운데 이동녕, 이시영, 이회영 등은 한말 기독단체인 상동청년회에서 활동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한 인물들이고, 신석우와 신익희는 나중에 기독교인이 된 인물들이다.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은 이동녕, 부의장은 손정도, 서기에는 이광수와 백남칠이 선출되었다. 이후 손정도는 임시의정원 부의장으로 시작하여 임시의정원 의장, 임시정부 평정관, 임시정부 의정원법 기초위원, 1921년에는 임시정부의 교통총장을 역임하면서 임시정부와 의정원의 조직체계를 잡는 데 깊이 참여하였다.[45] 두 번째 결정사항은 국호와 연호를 제정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셋째로 정부 조직과 내각 구성원을 선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여 국무원에 내무, 외무, 재무, 교통, 군무, 법무의 6부를 두도록 하였다. 상해 임시정부는 각 부의 대표자들을 총장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총장 선출 결과 대부분 상해에 있지 않아 실제 업무를 진행시킬 차장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

44) 김명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정에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의 역할," 「한국교회사학회지」 제51집 (2018년 12월), 123.

45) 김명배, 위의 글, 125.

같은 정부의 편제와 인물로 임시정부가 출범하였다. 임시정부 초대 각료 총 14명 가운데 7명이 기독교이었다. 특히 임시정부의 수반인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은 해외 독립운동의 대표적 지도자들로 일찍이 기독교에 입교하여 기독교 신앙으로 민족의 독립운동을 해오던 지도자들이었다. 또한 외무차장 현순은 정동교회 목사로 임시정부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하였고, 교통차장 선우혁은 신한청년당의 일원으로 국내에 파송되어 평안도 지역의 3.1 운동을 이끌어낸 기독교인이었다. 이외에도 군무총장 이동휘는 기독교에 입문하여 한때 강화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전도활동을 했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상동교회에서 활동 했던 인물이었으며, 법무총장 이시영도 상동청년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사실상 기독교 인사들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V. 해방 후의 상황과 기독교의 문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한국은 완전한 독립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미소 양군의 남북한 분할 통치가 되는 상태를 맞이하였다.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1945년 8월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이 일본에게 승리한 이후 한반도 남반부는 미군정 지배에 들어갔다.[46] 해방을 맞은 지도자들은 이제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46) 정용석, 『미국의 대한정책』(일조각, 1976), 113-15.

의견을 내고 조직을 만들고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과제 앞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해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해방의 기쁨보다 분단된 조국의 아픈 현실이 민족의 앞에 장애가 되었고, 과거의 일제하 민족운동과는 다른 차원의 민족적 과제가 남겨져 있었다. 해방 이후에도 민족주의는 분단된 국가와 사회를 통합하고 국가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하였다[47].

한편 해방 이후 한국교회는 우선 일제의 탄압으로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일이 급선무였고, 한편으로는 국가건설운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일제 탄압으로 교회를 떠나 숨어 있었거나 고통을 받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재건에 앞장섰지만 교회의 대결과 분열현상이 나타났다. 국가적 측면에서도 시급한 일제 잔재청산보다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사상적인 대결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해방 후 기독교 세력은 정치 및 사회단체를 조직하여 건국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남한은 민주주의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삼았다. 이처럼 남한의 경우 기독교인 지도자들은 해방정국에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참여하였고, 기독교의 신념과 사회·정치적 이념은 반공주의 국가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48]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에 토대를 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활동하였던

47) 박찬승, 『민족주의의 시대: 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서울: 경인문화사, 2007) 89-103.

48) 이은선, "한경직의 민족복음화 운동," 「장신논단 44-2」(2012. 7), 256-82.

부분이 그 예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일반 지도자들의 활동 이면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와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였다. 왜냐하면 이미 1945년 7월 일본의 강압적인 종교통합정책으로 인해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한국교회가 흡수되었다.[49] 먼저 교회 조직 움직임을 보인 쪽은 친일세력이었다. 이 교단에 관여했던 목회자들은 해방이 되자 조선기독교단으로 바꾸고 그 조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그들은 결국 1945년 9월 8일 38선으로 북의 교회 대표들이 참석할 수 없을 것이란 이유 때문에 우선 남쪽만의 교회 대표들로 구성된 남부대회를 소집했다.[50] 그러나 새문안교회에서 소집된 이 모임은 개회 벽두에 변홍규, 이규갑 목사 등을 중심으로 수십 명의 감리교 대표자들이 감리교 재건을 선언하고 퇴장함으로써 소란을 빚었다.[51] 하지만 이때 그 자리를 계속 지킨 감리교 목사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들은 장로교 목사들과 협의하여 '교단'체제의 존속을 논의했다. 그들은 그해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정동제일교회에서 재차 모임을 열었다. 그때 정식 명칭인 조선기독교남부대회가 생겨났다. 남부대회는 먼저 단일교회를 유지하여 비록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형성되기는 했으나, 그동안 교파별로 나뉘어 불필요한 경쟁과 마찰을 경험했던 만큼 하나가 된 교회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었다.[52] 또한 해방

---

49) 이덕주 · 서영석 · 김흥수, 『한국감리교회역사』 (도서출판 kmc, 2017), 344.

50) 김양선, 『韓國基督教解放十年史』 (大韓예수教長老會總會 宗教教育部, 1956), 50.

51) 위의 책, 50-51

52) 김춘배 『筆苑半百年』 (성문학사, 1977), 123.

이후 해외에서 귀환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인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을 통하여 기독교적 정권 창출의 기회를 삼아 이를 위해 단합된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일 교회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53] 하지만 시급한 일제 잔재청산과 왜곡된 역사에 대한 심판이 당시 과제였기에 이들의 입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남부대회의 활동이 한계를 보였고, 1946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2회 남부대회를 계기로 교파 환원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54] 결국 단일 교회 정치 조직의 꿈을 갖고 출발했던 남부대회는 시작한 지 1년 만에 실패로 끝났다. 해방 후 한국 기독교는 자신의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여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다. 해방 이후에도 역시 기독교는 민족문제를 통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즉, 해방 후 기독교의 역사적 과제를 살펴보면 당장에는 식민지 잔재청산과 신탁통치로 인해 갈라진 민족의 통일이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민주화를 통한 인권운동이요 민족적으로는 통일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해방 이후 교단의 분열에다 신학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어 통일에 관련된 논의나 기독교인이 실천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합의나 일치된 의견을 같이하지 못하였다.

식민지하에서 해방된 민족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식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이는 식민지하에서 왜곡되고 부패되고 상실되었던 민족정신을 회복하여 사회적 기풍을 쇄신하여 민족적 정통성을 재건해야 하는 과제였다. 여기에는 정치 · 사

---

53) 김양선, 앞의 책, 50.

54) 『朝鮮基督教南部大會 第二回議順序』(1946. 4), 30-52.

회 · 경제 등의 분야와 문화생활 속에 스며든 식민잔재가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 청산, 즉 친일파 청산이었다. 그러나 해방 후 한국 사회의 식민잔재 청산, 특히 친일파 청산은 실패했다. 또한 국토 통일의 과제도 안고 있었다. 해방 후 우리 민족사가 당면했던 중요한 과제는 국토 분단의 해소였다. 우리의 힘으로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지 못한 결과로 외세에 의해 이뤄진 국토분단이 민족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분단을 해소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과제였다.

Ⅵ. 전후의 한국의 통일에 대한 노력

6.25전쟁 후 남북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남북 간에 적대적 사고를 가지고 1950년대에서 1960년까지 남북관계에서 반공정책이 주를 이루어 왔다. 1970년대부터는 반공과 통일에 대한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예로서 남북 정부에 의한 1972년 "7.4공동성명서"를 채택한 이후에도 한국교회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갖고 있던 냉전적 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55] 그러면서 한국교회 진보 진영에서 1980년대에 이르러 통일운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교회가 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 비교적 "복음주의적 교회는 교회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북한선교를 북한의 복음화 및 북한교회 회복과 재건을 주장"[56]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

55) 전석재, "남북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역사," *The Korea Society of Mission Studies 44* (2016): 347-375.

56) 위의 책, 351.

한편 에큐메니컬 입장을 견지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과 "통일은 선교"라는 입장을 가지고 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진보적인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중심으로 통일운동에 앞장서는 동안, 복음주의 교회들은 비교적 북한선교의 관점에서 통일을 다루면서 선교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마련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선언"(1988)에서는 평화적 통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이자 "선교적 사명"이라고 규정하였다.

>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종' (엡 2:13-19) 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분단과 갈등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화해와 해방의 하나님나라를 선포하셨다(눅 4: 18, 요 14:27). …같은 피를 나눈 한 겨레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극복하여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 한국교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마 5:23-24) 임을 믿는다.[57]

이어 "한국기독교회선언"(1988)에서는 통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통일은 민족이나 국가의 공동선과 이익을 실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나 민족도 인간의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

5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통일위원회 편,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기독교통일운동 자료 및 신학논문 모음집』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0), 20.

이념과 체제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배려와 조치의 시행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인도주의적 조치의 시행이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58]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종교의 환경적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족화해를 이룩하는 것임을 깨닫는 일이다. 그 영역들을 찾아내어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할 선교의 과제이다. 통일을 통하여 남북을 치유하자는 넓은 의미의 선교를 보려는 통일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전향적인 관점에서 한교협은 '분단극복과 평화지향의 통일운동'이라는 하나님의 선교에 기반을 둔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화해, 기존체제를 인정하며,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서 평화통일운동의 저변확대, 의식의 변화, 변화된 생활, 이산가족에 대한 관심, 군축, 평화협정, 주변국가와의 연대, 미국 바로 알기, 북한과 북한교회 바로 알기, 남북교회의 교류와 협력, 북한동포 돕기 등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59]

진보적 통일선교 운동이 평화와 정의를 한반도에 실현하는 교회의 선교로 주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 교회에 불었던 평화운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먼저 교회협의회로 대표되는 진보적 기독교 통일운동은 한독교회협의회 이후 교회가 선교적 관점에서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국토 통일을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5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앞의 책, 23.

59) 임홍기,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과 선교과제," 『북한선교정책 공동세미나 자료집』, 대한 예수교장로회(통합)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한민족선교정책연구소 (2002. 6. 12).

서 상호 교류와 동질성 유지를 우선시하는 독일교회의 노력은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같은 분단국가로서 남북교회 교류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발견한 신선한 자극이었다. WCC 또한 지구촌 정의와 평화 운동은 남북을 반공 이데올로기 구도에서 인식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정의와 평화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진보진영이 추진하는 통일운동의 지향점을 한반도 평화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자극했다. 또한 정의와 평화의 문제는 한북미교회협의회에도 영향을 끼쳤다.[60] 한반도에서 경험되는 모든 민족적 모순은 분단에서 기인된 것이며, 그 모순 이면에 한반도 분단을 지원하는 미국의 정책과 상호 적대감을 조장하는 반공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한북미교회협의회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호 적대감의 해소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통일선교운동의 전략과 목표가 되었다. 교회협의회로 대표되는 진보적 기독교 통일운동은 서독교회를 통해서 평화적 교류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바라보게 되었고, 한북미교회의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통한 화해를 그 선교적 전략과 목표로 삼으면서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를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진보적 기독교 통일운동은 국제협의회를 통해 통일운동의 선교적 가능성, 독일의 사례, 정당성, 평화와 정의 그리고 선교적 전략과 목표, 적대감 극복을 통한 화해를 발견해 가며 교회의 선교운동으로서의 근거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통일선교운동이 그 이전보다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

60) 통일문제위원회,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70-71.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진보적 기독교 통일운동이 추진했던 이념적 대결의 극복과 평화 정착이란 주제가 당시 기존의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남북통일의 문제를 선교로서 공감하고 참여하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추상적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의 현실과 일반 국민의 정서에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모든 교회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남북 화해의 바람이 불어오고 남북의 평화와 화해에 대한 관심이 정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 내지는 기독교계에서도 관심을 더해가며 통일운동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국기독교계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전환점의 시점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Ⅶ. 남북의 하나됨에 대한 제언

1. 평화와 통일의 비전 제공: 기독교는 한민족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상동파의 대표적인 인물 전덕기가 배운 성서의 메시지는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해방을, 억눌린 이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건강을, 고통 받는 이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이었고, 이 말씀은 결국 전덕기와 상동파들에게 신앙훈이 되었다. 이들이 이해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나라였다. 즉, 하나님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하나님나

라를 사모하는 신앙정신은 전덕기의 민중사랑, 애국애족 정신, 그리고 상동파 인물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되었다. 전덕기는 교인들과 상동파 동지들에게 하나님나라를 소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던지고 동지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었다. 결국 그는 왜 우리가 독립운동을 벌이며,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상동파 독립 운동가들은 강력한 신앙 및 사상 무장을 하였고, 신민회에 참여한 인물들처럼 목숨을 바쳐서라도 민족을 위해 일하는 인물들이 모여든 것이다.

전덕기의 바른 신앙과 비전 제시는 애국자들을 상동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이들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했다. 전덕기가 「신학월보」에서 1904년 기고한 "마땅히 깨울 일"[61]을 통해 그의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애국사상을 엿볼 수 있다. 전덕기는 우리 민족이 삼천 년이나 깊이 잠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지가 묶인 결박을 풀려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이 민족 온 동포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 나와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깨어 일어나자고 역설하였다. 성령의 힘, 즉 신앙의 능력으로 청년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바로설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기독교 지도자인 전덕기는 젊은이들을 비롯한 동포들에게 교육을 강조하였고, 기독교의 영향력, 즉 성령의 힘을 역설하였다.

이제 기독교는 이 사회에 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의 꿈이고 기독교 민족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기독교는 통일의 큰 꿈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결코 전쟁을

61) 「신학월보」 (1904. 10월호), 442-444.

통해서도 안 되고, 일방적인 흡수통일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먼저 화해자로서 평화의 사도로서 서로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져야 한다. 과거 전덕기가 일제의 압제 가운데도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 민족이 필히 독립을 이루어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활동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민족을 위한 우리의 몫을 담당해야 한다. 그동안 남북이 화해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민족화해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기도하며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2. 교육을 통한 지도자 양성: 포용력 있는 지도자

전덕기의 목회와 민족운동은 배타적이지 않았다.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부자건 가난한 자이건, 높은 자이건, 비천한 자이건, 배운 자이건, 무식자이건 상관치 않고 이들을 모두 품에 앉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누구와도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었다. 교파와 사상을 초월해서 함께 일했고 자신보다 남들과 조국을 먼저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상동의 전덕기에게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지식인을 비롯한 애국 청년들과 민족 지도자들이 전덕기와 함께 모여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나라를 구할 방도를 찾았다. 상동에 모인 애국자들이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졌을지라도 전덕기의 용광로에 용해되어 함께 같이 민족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전덕기 목사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의 포용력 때문이었다. 민중계층이 상동교회로 많이 몰리게 된 것은 단지 지리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위안처로 삼기 위해서보다는 전덕기 목사의 넓은 포용력과 지도력 덕분이었다. 또한

지식인 계층의 인사들이 상동교회로 모여들고 전덕기를 중심하여 구국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도 역시 전덕기 목사가 모든 애국인사들을 품어줄 수 있는 큰 그릇이었다는 점이다.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이들의 다른 입장을 전덕기의 신앙과 인격의 용광로에 용해시켜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덕기의 모습으로 볼 때 지금의 사회 및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파, 교파주의에 빠져 있는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 안주하고 있는지, 역사의식 없는 자세로 현실에만 매여 사는지, 자신의 명예와 이익만을 생각하지는 않는지를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이제 전덕기처럼 우리 민족의 숙원인 평화적 통일을 위해 화해와 일치를 가지고 기꺼이 빈 마음과 열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함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민족적 일군들을 양성하는 국민교육에 힘을 써야 한다. 이 시대 진정 전덕기와 같은 인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와 통일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평화교육이 필요하다.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평화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제 통일교육에는 전쟁과 대립의 역사에서 형성된 남과 북의 적대적 불신의 해소와 아직도 잔존하는 반공, 멸공, 승공 등 반북적 자세의 수정이 요구된다.[62] 이제 우리는 평화와 화해 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 가치로 삼아 의식이나 가치관을 비롯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가치에 맞는 평화와 인권, 사랑과 배려, 함께 용납하고

62) 김한종, "평화교육과 전쟁사: 모순의 완화를 위한 전쟁과 교육의 영향," 「역사교육연구」 18 (2013), 92.

어울리는 삶, 세계 보편 가치에도 맞고 이 민족이 차츰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핵심가치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교육과정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63]

3. 신앙(말씀)실천운동: 행동하는 민족운동, 온전한 신앙의 삶 살기

종교운동으로서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상동파를 비롯한 기독교 애국인사들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신앙 실천을 해나갔다. 특히 전덕기는 설교나 말에만 그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설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가였다. 그가 목회하는 상동교회가 주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든 자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기에 전덕기는 구휼과 치료, 나아가 죽은 후에 장례까지도 책임지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의 삶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덕기 목사에게 감화를 받고 그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다. 즉, 말이나 글이 아닌 몸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는 것이다. 그가 1914년 죽었을 때 평소 그에게 신세를 지고 감화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상여 행렬이 10리나 될 정도로 기생, 백정, 불량배들이 죽음을 애도하였다는 데서 전덕기의 이웃사랑의 실천력을 실감하게 된다.[64]

이처럼 전덕기는 기독교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였다. 전덕기는

---

63) 유재덕, "기독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색: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제42집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5), 262.

64) 송길섭, 『민족운동의 선구자 전덕기 목사』 (1979), 103.

자신이 설교한 것처럼 온 마음과 몸을 다해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살리는 목회를 하였다. 교회 안의 울타리에서 안주하고 인정받으려는 목회가 아니라, 고난을 무릅쓰고 참된 교회의 사명을 다하려는 역동적인 목회자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전덕기 목사의 삶과 활동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기독교인이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교인, 혹은 진정한 목회자로서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진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몸으로 선포해야 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목회, 억눌린 자들을 위한 목회,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목회, 이것이 전덕기의 목회였고 꿈꾸는 교회였다.

전덕기는 행동하는 민족운동을 이끌어간 인물이다. 삶을 통해 실천되는 신앙생활이 힘이 있다. 기독교의 강점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즉 얼마나 말씀을 실천하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전덕기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실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진다면, 남북의 화해도 가능하며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고 먼저 손 내밀고 이들을 진정 품을 수 있으리라 본다. 민족화해와 평화 상생의 길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앙 실천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지금 한국교회의 과제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Ⅷ.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한국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민족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라사랑의 역할을 해왔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해방 후 분단이 된 채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대립적인 상태에 머무르는 형국이다. 이제 화해하고 용납하여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한국기독교 선교 초기부터 민족문제에 관심가지고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에 기독교가 기여하였듯이, 이제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운동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궁극적으로 하나 된 우리나라는 참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오랫동안 서로 대립한 채 살아왔다. 이념과 체제가 달라서 서로 공존하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쉽게 통일을 말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남북한의 통일 논의에서 무조건적 통일지상주의나 통일 만능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통일을 논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의미는 남한과 북한 모두가 같은 핏줄이며 동일한 역사와 문화 속에 살았던 하나의 민족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같은 민족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서로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샬롬 공동체를 추구할 수 있다. 여기서 평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남북이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룬다는 의미는 단지 정치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통합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평등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성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의를 기반으로 보다 더 평화로운 나라로, 그리고 서로 상생하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남북이 분단으로 인해 경험한 고통과 아픔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한반도 사회 구조들을 세워야 하는데,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기다리는 연합된 공동체로서 결국은 상호 일치를 형성해갈 수 있다

해방 직후 한국 기독교는 공산주의자들의 압제를 경험하여 이념적 대결의 첨병노릇을 했다. 이제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북의 동족을 향해 가졌던 적대적 시각을 버리고 대결로 치달아왔던 남북 관계를 화해와 평화로 이끌어야 한다. 한국기독교는 이제 민족의 마음의 통일을 과제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실천해야 할 몫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인 국토와 체제의 분단과 이념적 대립, 그리고 과거 전쟁의 비극의 역사를 풀어가는 것은 용서와 화해로서 가능하지, 증오와 보복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기독교의 핵심 교훈과 진리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를 못 박은 원수까지 용서함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단 상황에서 한국기독교의 민족적 사명과 선교의 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은 이웃사랑과 화해에 있다.

참고문헌

노치준. 『일제하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 연구』. 서울: 다산글방, 1995.

민경배. 『일제하의 한국기독교 민족 · 신앙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김권정.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서울: 국학자료원, 2015.

———. 「1920~30년대 한국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 연구」, 숭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김명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정에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의 역할." 「한국교회사학회지」 제51집, 2018년 12월.

김상근. 『민족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공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창립 70주년, 1994.

김양선. 『韓國基督教解放十年史』. 大韓예수教長老會總會 宗教教育部, 1956.

김춘배. 『筆苑半百年』. 성문학사, 1977.

김한종. "평화교육과 전쟁사: 모순의 완화를 위한 전쟁과 교육의 영향." 「역사교육연구」 18. 2013.

김흥수.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역사에 대한 재검토," 채수일 편.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大韓新民會通用章程." 愼鏞廈, 『韓國民族獨立運動史硏究』 30.

도산기념사업회. 『속편 도산 안창호』. 서울: 삼협문화사, 1954.

민영진. "통일신학의 과제와 통일운동 실천 방안." 『평화 · 통일 · 희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박찬승. 『민족주의의 시대: 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 서울: 경인문화사, 2007.

송길섭. 『민족운동의 선구자 전덕기 목사』. 서울: 세신문화사, 1985.

신용하. "新民會의 創建과 國權恢復運動." 「韓國學報」 제 8,9집. 서울: 일지사, 1977.

안교성. " 통일신학의 발전에 관한소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0. 2013.

유동식. 『정동제일교회의 역사(1885-1990)』. 기독교대한감리회, 1992.

유재덕. "기독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색: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제42집.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5.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 서울: 일지사, 1990.

윤춘병. 『전덕기목사와 민족운동』. 서울: 감리교출판사, 1996.

이덕주 · 서영석 · 김흥수. 『한국감리교회역사』. 도서출판 KMC, 2017.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보성, 1986.
———. “기독교 수용과 사회개혁.”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두레시대, 1998.
이은선. “한경직의 민족복음화 운동.” 「장신논단 44-2」. 2012. 7.
이현희. 『臨政과 李東寧 硏究』. 서울: 一潮閣, 1989.
임흥기.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과 선교과제,” 「북한선교정책 공동세미나 자료집」. 대한 예수교장로회(통합)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한민족선교정책연구소, 2002. 6. 12.
장규식. “일제 강점기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의 정치경제사상.”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31)」. 1998.
———.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혜안, 2001.
張錫英. “승리의 비결.” 『華泉 回顧錄』. 益文社, 1976.
전석재. “남북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역사.” *The Korea Society of Mission Studies 44.* 2016.
전택부. “상동파: 그 역사와 독립꾼들.” 『토박이 신앙산맥』.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정 교. 『大韓季年史 下』. 국사편찬위원회, 1957.
정용석. 『미국의 대한정책』. 일조각, 1976.
조이제. 『한국 감리교청년회 100년사』. 서울: 감리교청년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1997.
최영근.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한 한국 기독교와 민족주의 접합에 관한 소고.” 「장신논단49(1)」.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1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통일위원회 편.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기독교 통일운동 자료 및 신학논문 모음집』.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0,
허문영 외.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4.

“우리 교회가 흥왕ᄒᆞ면 나라이 더욱 문명ᄒᆞ.”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8년 6월 1일.
“잡보.” 「독립신문」. 1896년 9월 5일.
“잡보.” 「독립신문」. 1896년 9월 5일.

"잡보." 대죠션 달셩회당 예수교인 등 애국가."「독립신문」. 1896년 7월 23일.
"청년회."「조선크리스도인 회보」. 1897. 9. 8.
「죠션 크리스도인회보」. 1권 6호, 1897년 3월 10일.
"론셜: 예수탄일."「독립신문」. 1898년 12월 24일.
공흥렬. "밋음과 열심."「신학월보」. 1903. 9.
이승만. "상동청년회의 학교를 셜시홈."「신학월보」. 1904. 11.
「大韓每日申報」. 1905. 11. 12.
「大韓每日申報」. 1905. 11. 19.
「그리스도신문」. 1901년 10월 1일.
"하기아동학교와 조선의 장래."「기독신보」. 1924. 6. 25. 사설.

『조선감리회연회록』. 1906.
『朝鮮基督教南部大會 第二回議順序』. 1946. 4.
『顧問警察小誌』, 韓國內部警察局. 1910.

Horace 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1926.
John Hutchinson and Anthony D. Smith (eds.).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hilip Jaisohn. "What Korea Needs Most." *The Korea Repository,* March 1896, 14-16.